

대구주보

예수 부활 대축일
2012.4.8.(나해) 제1776호



† 금주의 성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하늘에 오르신다.
그 아래에는 성모님을 가운데 두
고 열두 제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서있다. 성모님의 뒤에 서 있는 두
젊은이는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
들인데, 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
키며 성모님과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배
경에 그려진 올리브 나무들은 죽
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
지 않는다면 ...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1코린 15,17-19)

이흥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론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1-9 참조)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부질없는 희생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임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 성야 미사

제1독서 창세 1,1-2,2 제2독서 창세 22,1-18
제3독서 탈출 14,15-15,17 제4독서 이사 54,5-14
제5독서 이사 55,1-11 제6독서 바룩 3,9-15,32-4,4
제7독서 예제 36,16-17,18-28
서간 로마 6,3-11 복음 마르 16,1-7

부활 낮 미사

제1독서 사도 10,34,37-43 제2독서 콜로 3,1-4
복 음 요한 20,1-9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2012년 교구장 부활 메시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부활절은 모든 축일 중의 축일이요, 모든 주일 중의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지상 탄생일이라면 부활절은 주님의 영원한 탄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화는커녕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의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져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의 마음도 갈라져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원리는 당리당략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 추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모름지기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민의 선거로 그 일꾼을 뽑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보다 적극적이며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요, 절망을 이긴 희망의 승리입니다. 또한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요, 미움을 이긴 사랑의 승리요, 어둠을 이긴 빛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절망이 있을 수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삶이란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삶이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삶을 벗어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이며,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서로 나누는 삶이며, 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과 힘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고 희망찬 나날 되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 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2012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조 환 길 타 대 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교구 문화홍보실



부활성야 전례는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기도로 밤을 새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글자 그대로 밤을 새는 경우는 드물지만, 구원 역사를 되짚으며 묵상하는 많은 독서들은 이 전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활성야미사에는 평소와는 다른 예절이 둘 있는데, 바로 빛의 예식과 입교 예식입니다.

빛의 예식

빛의 예식은 성당 밖에서 새 불을 축성하고, 이 새 불로 점화한 부활초를 앞세워 교우들이 성당으로 행렬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당으로 부활초가 들어가면서 부활초의 심지에서 교우들이 들고 있는 초에 불이 옮겨 붙으면 어둠에 싸여 있던 성당이 점점 촛불로 은은히 밝아집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모든 교우들에게 나누어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초가 제대에 다르면 부제가 홀로 부활찬송을 노래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어둠을 이기는 빛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오래된 찬가는 성야 미사의 여러 전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활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부활시기 내내 제대에 세워 불을 밝힙니다. 부활시기 아닌 때라도 세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부활초를 밝힙니다.

입교 예식

전통적으로 예비자가 세례를 받는 때는 바로 부활성야 미사 때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밤에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모는 새로 영세한 자기 대자녀에게 부활초 심지에서 옮겨 붙인 촛불을 건네주고, 주례사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신앙에 항구하여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하고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신비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하여 말합니다. 복음 말씀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루카 24,39) 아직 “어둠”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신비의 핵심인 부활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알 수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44).

말씀과 교리

파스카는 신앙의 신비이자 정수이며 핵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정수이며,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Pascha;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신비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38). 하느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부활을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받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 자체가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부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

하는 첫걸음입니다. 복음은 빈 무덤에 들어간 제자들이 아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쓴 수건이 한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요한 20,6-8)고 전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40). 부활은 피조물과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점에서 신앙의 대상이며 신앙의 신비의 핵심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47-648).

말씀과 성사

구원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받으시게 될 수난을 “받아야 할 세례”(마르 10,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세례의 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요한 19,34)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전형(典型)으로, 그때부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날”(요한 3,5)수 있게 된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25).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잠기고, 세례의 물로부터 다시 일어나며,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받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 부활이 왜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일까요?
-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떻게 반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죄와 용서

원죄와 본죄

원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금하신 나무열매를 따 먹고 죄를 지은 이래 그 죄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대죄와 소죄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하느님의 계명을 고의로 범하면 대죄가 됩니다. 계명이 금하는 줄을 몰랐거나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죄를 범하면 모든 은총과 공로를 잃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소죄는 사소한 계명과 규칙을 범하는 행습입니다. 계명을 알지만 중한 줄을 잘 깨닫지 못하였거나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죄는 즉시 모든 은총을 잃게 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소죄를 지으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마음의 괴로움을 자초하며 후세에 연옥 벌을 받게 됩니다.

회개와 용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에 사람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요한 20,21-23). 사람이 세례성사를 받으면 주님의 수난 공로로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모든 본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은 죄는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릇된 길을 떠나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죄 지은 바를 뉘우치고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하지 않은 채 고해성사를 보거나, 거짓으로 죄를 고하거나 숨기는 것을 고해성사를 모독한다고 하여 모고해라고 하는데, 모고해를 하면 죄를 용서받기는커녕 더 큰 죄를 또 짓는 것이 됩니다.

삼구와 칠죄종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는 세 가지 원인을 삼구(三仇, 세 가지 원수)라 하는데 마귀, 세속, 육신이 그것입니다. 칠죄종(七罪宗)은 일곱 가지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탐식, 질투, 게으름이 그것입니다. 삼구 원수

오늘의 미사 · 예수 부활 대축일

【입당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네
【제1독서】	사도 10,34-37-43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2독서】	콜로 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32 감사의 송가를

【복음】	요한 20,1-9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파견성가】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교구 소식



† 제2차 교구 시노드 청년, 청소년 분과 전문위원 워크숍

제2차 교구 시노드 청년 분과 전문위원 워크숍이 3월 29일(목), 청소년 분과 전문위원 워크숍이 3월 30일(금)에 교구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3월 20일(화)~21일(수)에 있었던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 분과와 『새시대 선교』 분과의 전문위원 워크숍에 이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시노드 의장이신 교구장 대주교님과 시노드 중앙위원장 이용길(요한) 신부님, 시노드 사무국장 임석환(스테파노) 신부님을 비롯, 각 분과의 전문위원들이 참가, 토론을 벌였다.



† 가톨릭신문 창간 85주년

가톨릭신문이 4월 1일(일)자로 창간 85주년을 맞이하였다. 가톨릭신문사장 황용식(타대오) 신부님은 기념사를 통해 “공의회 정신의 실현과 새로운 복음화의 노력이 같은 맥락임을 신자들에게 알리면서, 보편교회와 함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4월 13일(금)~17일(화), 교구장 대주교님 대만대중교구 50주년 행사 방문

새롭게 태어났으니...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넷째주 토 16:00
장소: 예수회관구본부
주제: 예수회의카리스마 / 기도와식별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7197-7400, vocsj@daum.net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4.15(매월 셋째 일) 14:00~
장소: 대구 계산서원, 칠곡수련소
문의: (010)9407-6219

수원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4.15(일) 14:00, 수녀원
문의: (010)8833-8107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성소주일 축제

일시: 4.29(일) 10:30~17:3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본원
주제: 나도 그분을 압니다.
대상: 젊은 미혼 여성(선착순50명)
문의: 4.20(금)까지, (010)3803-8973

피정

2박3일 성령세미나

일시: 4.27(금) 9:30~29(일) 17:00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대상: 일반, 참가비: 12만 원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거룩한 독서 (LD) 피정

가족피정: 5.5(토)~5.6(일)
4박 5일: 5.23(수)~5.27(일)
주최: 토티포교베네딕도수녀회
문의: 연화리 피정의 집
(054)973-4835

가족 수도생활체험 피정

일시: 1차 5.19(토)~20(일)
13:00~13:00
참가비: 4만5천 원 (선착순 80명)
장소: 왜관 피정의 집
문의: (054)971-0722

오순절 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 11:00~16: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권베로니카, (010)2389-333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4.20(금)~22(일) 17:30
4박5일: 4.23(월)~27(금) 14:00
8박9일: 5.17(목)~25(금) 14:00
대상: 일반신자 및 성직자, 수도자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

삼성산 성지 2박 3일 회복 대피정

일시: 4.13(금) 18:00~15(일) 15:00
강사: 김화태(제르바시오) 신부 외
차량 문의: (010)9065-5395

기타

본도출판사 대구매장(삼덕성당 점)

신앙서적, 미디어, 성미술 작품
수도자들이 직접 제작한
성물과 정통 독일식 소시지(순대)
오픈: 12:00(주일 10:00)~20:00
문의: 삼덕성당내, 252-9889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오전 10시	성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2대리구청 -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 -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4월 9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4월 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월례미사	4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삼덕성당
해위선교후원회 월례미사	4월 14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떼제 미사와 떼제 기도	4월 14일(토) 오후 6시	삼덕성당

흔수품 우대 · 이불 개조 · 기숙사 이불
손수비전문 Angela **안젤라 침장**
The bedding Gallery

월배 친견역 사거리 신한은행 맞은 편

T. (053)642-5191
김성길(요 쎌) 017-531-5191
박광희(데레사) 017-532-5191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가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대표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 (053)639-8998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밀레 매장 건물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야뇨증/성장장애 · 감기돌업

“먹기 좋은 달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 (053)592-1275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덕두(아오싱) 배성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장아세포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청정재주의 신선한 유기농우유 **유기농**
성이시들 목장우유
제주우유 (대리점모집)
유기농우유, 저지방우유, 제주초지방목우유

대구총판매점 대표
최준하(바오로), 박창완(마리아)
☎ (053)426-3300 www.jejumilk.kr

명품음 만드는 **SM 수맥흙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4.20(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부활감사 결식아동 돕기 7080 밥 콘서트

일시: 4.21(토) 19:30
장소: 대명성당 (무료 초대)
문의: 밥밴드, (010)9577-7819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테니스대회

일시: 5.27(일)~28(월)
접수마감: 4.27(금)
문의: 교구 평협, 250-3057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의

일시: 4.11(수) 13:00, 가톨릭교육원

교육 / 모집

상반기 부자녀캠프 신청

기간: 1차 5.12~13, 2차 5.26~27
(중 · 고등 자녀)
3차 6.9~10, 4차 6.23~24(초등 자녀)
장소: 명곡 가톨릭스카우트교육원
대상: 아버지와 자녀들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

대구대교구 어머니학교 모집

일시: 4.26~ (매주 목, 5주간)
오전반 9:30~14:00
오후반 19:10~22:10
장소: 교구청 별관1층 대화합실
회비: 10만 원
문의: 2대리구청, (010)6669-9746

제46기 선교대학 개강

일시: 4.14(토) 10:00~16:00
장소: 계산문화관3층선교센터
주제: 선교의 열쇠는 감동
지도: 이판석 신부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상담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상담 유경험자(심리, 복지분야)
내용: 문제음주자 및 그 가족 등 상담
문의: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638-8778

성가대를 위한 지휘 아카데미기모집

일시: 4.15(일) 15:00 (1학기, 12주)
대상: 지휘법을 잘 공부하고 싶은분
강사: 황해랑(대구시향 전임지휘자)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대구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매주 수요일 13:30~15:30
대상: 성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
내용: 발성법, 호흡법 등
문의: 박 아녜스, (010)5291-2919

청년 성가대(Bene Te)모집

첫모임: 5.3(매주 목) 20:00, 삼덕성당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합창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김 후고 수녀
313-3431, (010)8519-3431

가톨릭요셉발간교회 강좌(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 14:00~16:00(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 10만원)
<http://www.footfather.com>

자녀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집단미술치료

일시: 4.26~ 매주목(10회) 9:30~12:00

장소: 바를로교육센터

신청: 4.21(토)까지 (전화접수)
문의: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10)2000-9059

대구가톨릭대학교TESOL6기모집

설명회: 4.14(토) 15:00, 접수: 14일~
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수료후 미네소타주립대 온라인수강가능
신부님추천장학, 영전강 지원자격취득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5.27(일)~6.11(월) (15박16일)
장소: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대한항공)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전화를 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채용

지산성당 사무원(여) 직원 모집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자필),이력서,
교적사본
서류마감: 4.17(화)까지
문의: 지산성당 사무실, 781-2668

월명성모의집(김천) 직원 모집

모집부문: 간호사,조무사,요양보호사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 및 자격증사본
문의: 인사담당, (054)435-5579

요양보호사 모집

대상: 65세 미만 남녀 상시취업가능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주최: 빈첸시오 간병인협회
문의: 428-0057 / 255-6911

15년 경력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선나 010-6571-33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트피센터 · 여드름 · 레이저 · 모발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 술 전 문 병 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원방한의원
통합진료 / 맞춤보약
각종 암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전 대구가톨릭대학교수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터플스파랜드 3층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멋진인생 에스텍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지점) 남구, 대구, 동호, 두류, 만촌, 방어, 산격
서면, 성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 8850

DAGO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현영희(아녜스)
박준구(베드로)
T.053-766-3815
010-3295-4476